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서동 136-46 기독교 회관 802호, 110-701
전화: 763-9633 FAX: 763-9634

정대협 : 제 93 - 42호
수 신 : 마이니찌 신문사
참 조 : 각 언론사 국제부/여성부
제 목 : 마이니찌 신문 오보에 대한 항의서 전달

1993. 6. 29

마이니찌 신문은 6월 29일자 강제종군위안부 증언청취 조사에 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입장전환에 대한 오보의 근거를 밝히고,
해명 사과하라.

1. 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무도 일본외상의 방한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재 한일간에 진행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줄속타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2. 더우기 최근 일본정부의 “피해자증언청취를 위한 한국방문”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분명히 밝혀 왔다.(별첨 성명서 참조)
3. 그런데 일본 외상 방한당일인 금일(1993. 6. 29), 마이니찌 신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애초, 증언청취조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바꾸어 이제 피해자 증언청취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보이다.
더구나 본 협의회에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의 중대한 현안문제에 대해 오보를 낸 마이니찌 신문의 무성의와 부정확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더우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정부의 국제적, 국내적 종군위안부 문제의 은폐, 축소조작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일본정부의 의도적 오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우리는 마이니찌 신문이 오보를 내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히고, 정정기사를 같은 비중의 크기로 기사화 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993 년 6 월 29 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여성교회, 불교인권위원회여성위원회,
민족작가회의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여성위원회, 기독교민회,
정신대연구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카톨릭여성복지위원회, 두레방,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교역자연합(예수교장로회 통합), 여교역자협의회(기독교장로회)